

별이 To 된 Reach 사람들 a Star

광주시립미술관, 5·18 40주년 특별전
철라 고우다 등 국내외 작가 24명 참여
관람객 참여 작품 많아 흥미로운 감상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5·18 40주년 기념전 '별이 된 사람들'전은 흥미로운 기획으로 눈길을 끈다. 안두진 작 '마음에서 벌어진 은밀한 파티'



새로운 시선으로 광주정신 탐색

“이 다음엔 또 어떤 작품을 만날까?”

호기심과 기대로 설레는 전시장이라니. 그것도 늘 부담감과 무거움에 짓눌리곤 하는 '5월 관련 전시'에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여전히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묵직하고, 때론 아프고,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지만 유쾌하고 다채로운 표현방식으로 전달되는 작품은 관람객들을 전시 깊숙이 끌어당긴다.

전시장에 들어 누군가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고, 신음하는 돌덩이에 귀를 대보고, 수도꼭지를 틀어 시냇물을 들었다. 황무지에서 만나는 풀 한포기 놀라움처럼, 전시 개막 당시 '씨앗'에 불과했다 '꽃'을 피워낸 작품을 만날 땐 경이로움을 느꼈고, 쌀 한봉지를 받아들이고 전시장을 떠났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주최한 5·18 40주년 특별전 '별이 된 사람들'(2021년 1월31일까지)전이 기존 5·18 전시의 틀을 깬 과감한 시도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 지역에서 열리는 5월

관련 전시는 익숙한 구성과 패턴이 많았다. 이번 전시는 직접적인 고발 중심의 리얼리티 묘사 대신 은유와 암시로 광주정신의 '미래'를 엿보게 한다. 무엇보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많고,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관람객의 참여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품의 변화를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점도 재미 있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작가 24명(팀)이 참여해 회화, 사진, 설치, 미디어, 영상, 사운드, 생애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미술관의 로비에서부터 시작된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현수 작가의 대형 조형물 '백련'은 관람객이 작품 주위에 배치된 방석에서 108배를 하는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면 작품이 완성되는데 며칠 전 열린 퍼포먼스에 많은 관람객이 참여했다. 독일 등 현지에서 진행했던 영상을 함께 관람하면 훨씬 흥미롭다.

생태미술가 전원길의 '녹색 별자리'와 '2020 백

초를 기다리다'는 '시간'을 만나는 작품이다. 전남 도청 등에서 채취한 흙과 전국 13개 휴게소에서 담아온 흙에 숨어 있던 씨앗이 짙은 티우고 무성해지는 순간을 마주하니 작은 탄성이 나왔다.

1~4전시실을 쓰고 있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공간 변형과 작품 배치가 눈길을 끄는데, 첫 작품 안두진의 '마음에서 벌어진 은밀한 파티'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등장에 관람객을 압도한다. 강렬한 붉은색이 시선을 빼앗는수상작은 느낌의 붉은 방과 여러 개의 문, 그 속에 담긴 수천개의 낯선 설치물이 어우러진 공간은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독일 피터 바이벨의 영상 작품 '비디오 루미나'는 7대의 모니터를 통해 동일한 눈동자가 관람객들을 바라보는 작품이며 누군가의 신음을 반복 재생하는 '신음하는 돌'은 긴장감을 준다.

쑤위엔&펑위의 'No Way'는 어두운 공간에 배치된 하나의 테이블과 두 개의 의자가 마주보고 있는 작품이다. 사람이 앉아 있지는 않지만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두 사람, 두 세력이 긴장감 있게 대치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달궈진 철판 위로 시간을 두고 한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 긴장감의 존재를 새삼 일깨운다.

철라 고우다 작 '다크룸-광주'는 인도에서 도로 공사용 아스팔트를 담던 드럼통으로 은신처같은 건축물을 지은 작품이다. '광주' 버전은 광주에서 비슷한 소재의 드럼통을 구해 작업했으며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다크룸 입구엔 오스카와 일드의 명언이 붙어있다. "비록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살지만, 우리 중 누군가는 별을 바라보고 있다."

정정주의 '응시의 도시-광주'는 작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한 5·18의 기억과 연관돼 있다. 흰색의 '구 도청과 전일빌딩, 그리고 상무관' 대형 모형의 전시하고 그 안에 카메라를 장착해 작품 앞을 서성이면 내 자신이 바로 도청에, 전일빌딩의 어느 한 공간에 머무는 느낌이 든다.

조덕현 작가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철라 고우다 작 '다크룸-광주'

는 관람객이 작은 돌을 하나 집어 작품 어딘가에 놓는 것으로 시작된다. '광주여 영원히'를 작곡했던 윤이상의 동명의 곡이 시종일관 흐르는 가운데 이승과 저승, 과거와 현재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물 된의 '오디토리움(광주)'은 오랜 기억의 상징 수백개를 원형극장식으로 표현해낸 설치작품으로 기억의 영화관에 당도한 느낌을 준다.

천경우 작 '사과의 테이블'은 관람객이 누군가에게 '평생 하지 못했던 하나의 사과'를 적고 그 종이를 분쇄해 대형 거울 테이블 위에 쌓아놓는 퍼포먼스 작품이며 "당신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등의 질문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100개의 질문'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또 엄기백 작 '푸른 언덕'은 한 시대를 향유했던 '자개장'의 파편화 된 조각들과 흔적을 통해 그 안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하며 흰 곡선 파이프와 스피커 등으로 구성된 사운드아트 설치작품 정만영의 '순환하는 소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시인 김준태의 작품과 물소리, 새소리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조정태의 회화 작품 '별이 된 사람들', 문승현 곡 '그날이 오면'이 마음을 흔드는 오재형의 영상작품 '오월'도 눈길을 끈다. 오월을 겪었던 이들에게 들은 레시피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한 장동 콜렉티브의 '오월식탁'을 관람한 후 받아든 쌀 한봉지로는 '오월음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무료 관람.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광주피아노아카데미, 내일 금호아트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의 피아노곡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김정아) 제5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근영

이번 음악회에서는 베토벤의 '32개 피아노 소나타' 중 비중이 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중기 소나타 15번 '전원', 17번 '폭풍'과 마지막 세 개의 소나타 30번, 31번, 32번을 피아니스트 합지연·이근영·이담아·정세화·김형미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10-6331-6834. 전석초대.



정세화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27일 '데미안' 북토크



광주일보와 철학자 최진석 명예교수와 함께 하는 '최진석과 함께 책 읽고 건너가기' 10월의 책 '데미안' 북토크가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세말새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7시부터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북토크에서는 최교수와 '책 읽는 개그맨' 고명환씨가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북토크 내용은 이후 광주일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세말새봄 유튜브채널에 업로드된다. 11월에 함께 읽을 책은 오는 11월 2일자 광주일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시 두 달이 지나면서 씨앗에서 꽃을 피운 전원길 작 '2020백초를 기다리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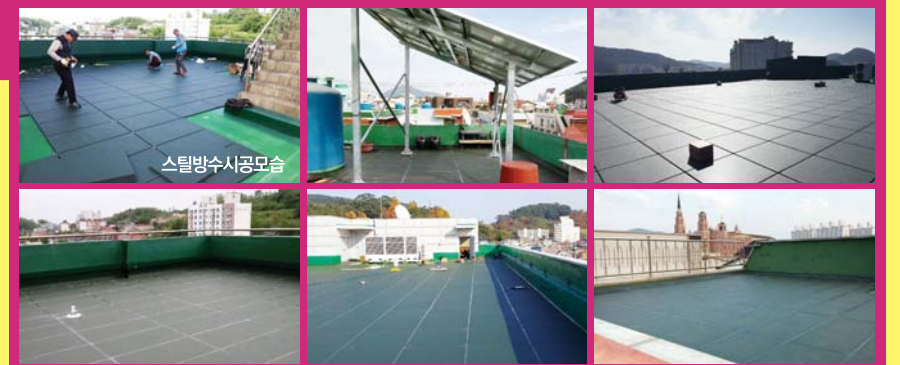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